

한·중 FTA 협상, 농산물 시장 개방 촉각

시진핑 방한 후 첫 협상...공산품 개방 태도 변화 기대

정부, 쌀 관세화 입장 주내 발표...전국 농민단체 반발

18일까지 12차 협상

한국과 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제12차 협상이 시작되면서 농산물 시장 개방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정부가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 개방 입장을 이르면 이번주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이리저리 농민들의 고민만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14일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하고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유관 부처 담당자로 대표단을 구성해 대구에서 오는 18일까지 일정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 제12차 협상을 시작했

다. 중국 측에서는 왕서우원 상무부 부장 조리(차관보급)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농업인 4000여명은 오후 2시부터 한·중 FTA 제12차 협상이 시작된 대구 엑스코 인근에서 전국농축산인 결의대회를 갖고 한·중 FTA 반대, 농산물 가격폭락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양국은 지난 5월 중국 쓰촨성에서 열린 제11차 협상을 통해 협정문에 다룬 규범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봤지만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상품 분야에서는 견해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우리 정부는 공산품을, 중국은 농수산물을 개방 품목으로 요구하며 맞선 모습이다.

하지만 이번 제12차 협상은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3일 정상회담을 통해 'FTA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 강화'를 약속한 뒤 처음 열리는 공식 협상이어서 변화가 예상된다.

양국 정상이 조속한 협상 타결에 힘을 실어주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상품 분야 협상에 진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품목별 협상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석유화학과 철강, 기계,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 시장의 조기 개방을 요구할 계획이다. 중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해외 FTA 체결 사례 등에 비해 농산물은 대부분 국가에서 '초민감 상품'에 해당하므로 공산품과 달리 신중하게 다루야 할 품목이라는 논리로 맞설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농산물 시장을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공산품 분야에

서는 중국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 개방 입장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날 "7월 중 발표한다면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것은 (좋은 방안이) 아닌 것 같다"면서 "16일 오전쯤에는 발표 일정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주 중에 발표하지 않을 경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취임일정과 7·30 재·보궐선거 등을 고려해 다음 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애초 지난달 30일 대국민담화 형식 등을 통해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1일 국회 공청회 이후로 미뤄달라는 요청을 해 이를 연기한 바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호남고속철 등 현안 국비 반영해달라

이낙연 지사, 기재부 방문 내년 예산 확보 나서

이낙연 전남도지사(사진)는 14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호남고속철도 건설 등 2015년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내년도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송인석 예산총괄심의관 등 예산실 각 심의관들과 면담을 갖고 대통령 공약사업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 송정~목포 구간)의 실시절차 및 사업 착공을 위한 국비 예산의 반영을 건의했다.

또 무안국제공항이 21세기 동북아권 항공수요 증가에 따른 허브공항이자 인천·김해·제주 국제노선의 기상 이변에 대비한 대체공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주요 확장, 국도 2호선(하의~신의) 시설 개량, 진도 군내~서방 간 도로 개설공사 등의 예산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이 지사는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남해안철도(보성~임성) 건설, 국립 난대식물원 조성, 차 부품 고급브랜드화 연구 개발, 튜닝산업 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현안사업을 2015년 정부예산에 포함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지사는 15일까지 국비 확보를 위한 일정을 소화한 뒤 16일에는 무안공항에서 열리는 중국 심양~무안 전세기 취항 행사에 윤창현 광주시장과 함께 참석해 무안공항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시·구청 '제식구 감싸기' 심각

뇌물 공무원 승진 등 안행부 감사서 122건 적발

광주시와 일선 구청들이 뇌물수수 공무원을 승진시키고, 계약직 직원 채용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숨방망이 처분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식 행태를 보이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안행부감사부는 지난해 11~12월에 걸쳐 광주시에 대해 정부합동감사를 하고 법령 위반 등 부적절한 업무 처리 내역 122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결과를 보면 광주시 서구는 지난 2012년 명절에 떡값 명목으로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공무원 A씨를 징계하지 않고 단순 주의로 마무리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처리 직후 진행된 인사에서

되려 승진 대상으로 의결했다. 당시 광주 서구는 "공직사회에 대한 외부의 시선, 이로 인해 조직 전체에 미칠 파장 등을 감안해 징계처분보다 내부 조치함이 타당하다"는 구실로 A씨를 징계하지 않았다.

광주 동구는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대기발령만 내렸을 뿐 규정에 따른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광주시는 명예퇴직 수당을 과다지급하는가하면 무보직 대기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적발돼 주의 처분을 받았다. /*박진표기자 lucky@



2014 조선대학교 국제 태권도 아카데미가 14일 오전 광주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체육관에서 합동훈련을 시작으로 개막했다. 여섯 번째를 맞은 올해 대회에는 노르웨이, 덴마크, 미국, 스페인 등 세계 9개국에서 온 170여 명의 수련생 및 지도자들과 조선대학교 태권도학과 학생들이 오는 20일까지 함께 수련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15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호남, 상생이 미래다' 1면에서 계속

전북의 이 같은 강한 반발에는 지난 2011년 3월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전북에서 추진하던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을 반대하는 공동건의문을 국토부에 제출한 것에 대한 불만도 깔려있다.

현재 군산공항은 미 공군의 군사용 활주로를 빌려쓰는 탓에 군산~제주간을 오가는 항공이 유일할 정도로 전북은 사실상 항공 노선 오지나 다름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전북권 공항 건설을 재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해외투자자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인프라가 국제공항이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도는 새만금 개발지역에 투자하려 온 외국기업들이 국제공항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이 적자여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권 공항마저 건설될 경우 3개 공항 모두 공멸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 같은 논리는 전북권 공항 건설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다.

실제 광주공항의 적자는 2010년 16억 9600만원에서 2012년 20억7400만원으로, 무안공항은 같은 기간 73억8100만원에서 82억1200만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광주와 무안공항의 적자는 늘어나고, 전북의 국제공항 건

설의 꿈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3개 시·도가 시급히 만나 공항문제에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다.

특히 국방부에서 지난 5월 군공항 이전 사업단을 창설하는 등 전국 16개 군공항 이전에 나선 것도 호재다. 3개 시도는 이제 국방부를 활용해 광주공항 및 군공항 이전과 함께 전북 국제공항 건설, 무안공항 활성화 등의 묘수 찾기에 머리를 맞대야 할 때이다. /*박진표기자 lucky@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천층 안과병원운영

6/7층 라식센터
4/5층 수술센터
2/3층 외래진료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드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밝은광주안과를 이끌어 갈 소중한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분 야 : 간호조무사, 검안사, 코디네이터(데스크,상담)
조 건 : 성별, 나이, 경력 무관
담당자 : 062) 351-9934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곡점 맞은편 눈보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기성고대출 전문취급금고

방은 있는데 공사가 부족하신 분과 건설회사를 위한 대출!

- ☞ 착공부터 완공까지 자금지원
- ☞ 대출한도는 최고 지원
- ☞ 토지에 기존 대출 있어도 가능

대출금 지급방법
공사 기성에 의한 지급

상담시 구비서류

- 시설명세서와 소요자금 명세서
- 공사시방서
- 공사도급 계약서
- 도급업자의 도급공사
- 공사비목명세서
- 기성부분 보고서(기성명세서)

연락주시면 청심 성의껏 상담에 임하겠습니다.
담당 민 창 원 과장 연락처 062)720-2828

서양새마을금고

2013년도 경영평가 최우수금고 선정

2013년 서양새마을금고 사랑 나눔

광주지역 자산1위
당기순이익 1위
출자배당금 5%

2013년 금고자산 2,607억원
당기순이익 1593천만원
배당금 5.0% (현재 당기이익 대비 2%)

서양새마을금고
본회 671-5000 담양지점 652-9203 함양지점 364-7557 주유사업소 720-2880